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2월 경제 데이터 발표, 소비재 소매판매액 5.5%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한화 약 37억 원)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5.5% 증가한 8조 1,307억 위안(한화 약 1,511조 원), 고정자산 투자는 4.2% 증가한 5조 847억 위안(한화 약 945조 원)임
- 첨단 제조업, 소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7.5%, 4.7% 증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소비를 촉진하여 서비스 매출은 12.3% 증가함
- 통신기기, 스포츠·레저용품 판매액은 각각 16.2%, 11.3% 증가. 자동차 및 가전제품·영상·음향기기 판매액은 각각 8.7%, 5.7% 증가.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4.4% 증가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epaper.zqrb.cn/html/2024-03/19/content_1029422.htm?div=-1

2 中, 자동차·가전 교체로 1조 위안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생산·서비스 설비 교체 및 기술 혁신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장려 등을 제시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설비 교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5조 위안(한화 약 929조 원) 이상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자동차·가전 교체로 1조 위안(한화 약 185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
- 현재 중국에서 에너지, 산업, 건설, 교통 및 생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모터, 전력 변압기, 냉각, 조명, 가전 등 제품 및 설비 보유량은 50억 대 이상임
- 금번 '이구환신'의 주요 특징은 시장 주도 및 정부 유도로 재정, 조세, 금융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 에너지 등 생산요소를 보장하며, 에너지 소모, 탄소 배출 등 기준에 부합, 특히 소비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403/15/t20240315_38934636.shtml

3 中, 1~2월 자동차 판매량 11.1% 증가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8.1%, 11.1% 증가한 392만 대, 403만 대이며, 이 중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8.2%, 29.4% 증가한 125만 대, 121만 대로 시장점유율은 30%에 달함
- 본토 브랜드의 승용차 판매량은 26.7% 증가한 207만 대로 시장점유율은 59.9%로 상승
-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0.5% 증가한 82만 대이며, 이 중 연료차 수출은 39.0% 증가한 64만 대, 신에너지차 수출은 7.5% 증가한 18만 대로 집계
- 자동차공업협회 천스화(陈士华) 부비서장은 향후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의 산업 우위를 공고히 하고, 소비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경제참고망
http://www.jjckb.cn/2024-03/11/c_1310767299.htm

4 中, 일부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 최근 중국 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 싱가포르 및 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 각각 2024년 2월 9일, 2024년 3월 1일부터 발효. 이로써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등 개인 업무로 상대국에 입국 시 무비자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 중국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체류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방문 등이고 체류 기간은 15일 이내임

자료원 : 제1재경
<https://baijiahao.baidu.com/s?id=1792837195055939976&wfr=spider&for=pc>

5 상하이시, 중국 최대 가전 박람회인 ‘AWE 2024’ 개최

- ‘2024년 가전·전자제품 세계 엑스포(AWE, Appliance&Electronics World Expo)’가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투명 TV, 드론, 스마트 콘셉트카 등 첨단 제품들이 참관객의 이목을 끌었음
- 엑스포 전시 면적은 15만m²로 10여 개국 1,000여 개의 글로벌 가전·전자제품 업체가 참가하여, AI 대형가전, 스마트홈, 저공 항공기 등의 새로운 제품을 출품, 벽면 TV, 미래 컨셉 자동차 등의 ‘블랙 테크놀로지’ 제품을 전시함

- 또한 참가기업들은 스마트 TV, 휴대폰, 주거, e스포츠, 캠핑, 실버 등 분야에 사용되는 다양한 AI 단말기를 선보였고, 화웨이(华为), 하이얼(海尔), 창홍(长虹), 화띠(华帝) 등 기업은 AI 대형 모델, 스마트 브레인, 스마트 칩을 전시함

〈AI 블랙 테크놀로지 제품〉



삼성 투명 MicroLED TV



스마트 콘셉트카

자료원 : 증권일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545837941922722&wfr=spider&for=pc>

6 왕푸징(王府井) 글로벌 구매 체험 매장, 시안 쇼핑몰에 입점

- 최근 ‘왕푸징(王府井) 글로벌구매(全球购)’ 체험 매장이 산시성 시안시 린퉁(临潼)구 왕푸징 아울렛에 오픈, 이는 왕푸징면세품디지털소매회사(王府井免税数字零售公司)가 베이징시 외 지역에 오픈한 두 번째 매장임
- 베이징왕푸징면세품디지털소매회사는 해관의 ‘보세 전시·거래 타지역 감독관리(保税展示交易异地监管)’ 정책에 힘입어 38개 브랜드, 236개 SKU(재고관리 코드), 총 460개의 향수, 화장품, 스킨케어 등을 베이징시 텐주(天竺)종합보세구에서 시안시 체험 매장으로 발송했음
- 현재 왕푸징 글로벌구매(全球购)는 베이징, 톈진, 시안 등지의 총 6개 쇼핑몰에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오픈, 지난 1년간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체험 매장에서 총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13만 건의 상품을 구입함

〈왕푸징 글로벌구매(全球购) 베이징시 체험 매장〉



〈왕푸징 글로벌구매(全球购) 시안시 체험 매장〉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www.bbtnews.com.cn/2024/0314/506749.shtml>

7 中 자동차업체, 저공경제와 플라잉카 분야 진출

■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저공경제(低空经济)*’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신하이즈(中信海直), 광련항공(广联航空) 등의 주가가 상승했고, 드론업체 이항즈능(亿航智能)은 장쑤성 우시(无锡)시 정부와 이항 eVTOL 저공경제 산업기지 건설 계약을 체결

* 저공경제(低空经济) : 민간의 유/무인 항공기를 등을 활용해 여객 화물 수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공비행 산업을 통칭

- 지난 2022년 3월 교통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 발표한 ‘교통 분야 과학기술 혁신 중장기 발전 계획(2021~2035년)’에서는 플라잉카 연구개발 사업, 비행체와 자동차의 융합 기술 연구개발 착수 등을 발표. 한편 중국민용항공국은 2025년 중국의 저공경제 시장 규모는 1.5조 위안 (한화 약 2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올해 3월 8일 샤오펑후이텐(小鹏汇天)의 무인비행차량인 뤄항자X2(旅航者X2)가 자율주행 장거리 비행에 성공, 광치(广汽)자동차의 플라잉카 GOVE도 최초로 지역 내 저고도 비행에 성공
- 샤오펑후이텐, 광치 뿐만 아니라 지리(吉利), 폭스바겐 등 기업들도 플라잉카 시장에 진출. 2017년 지리는 미국 플라잉카 회사 Terrafugia를 인수, 2019년 9월 지리와 다임러(戴姆勒)는 독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체 제조사인 볼로콥터(Volocopter)에 5,000만 유로를 공동 투자, 2020년 샤오펑자동차는 후이텐테크놀로지(汇天科技)를 인수하며 플라잉카 분야에 진출



샤오펑후이텐 뤄항자X2(旅航者X2)



광치(广汽) GOVE



폭스바겐 수직이착륙기 V.MO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www.bbtnews.com.cn/2024/0313/506697.shtml>

8 中 하이난성, 중국 최초 ‘디지털 보세구’ 건설

■ 최근 하이난성 단저우(儋州)시 양푸(洋浦)경제개발구의 ‘디지털 보세구(数字保税区)’가 운영을 개시, 이는 중국 최초의 ‘디지털 보세구’로 향후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전망

* 디지털 보세(数字保税) :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해외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수집, 저장, 가공, 처리, 거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현재 양푸경제개발구는 데이터 가공 테스트를 완료하고 기업 감독, 데이터 감독, 지재산 보호 등 9개 방면의 관리제도를 구축했으며, 올해 데이터 가공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

자료원 : 공인일보

http://city.ce.cn/news/202403/15/t20240315_7380248.shtml

9 외자기업, 中 중서부 지역 및 하이테크 제조업 투자 확대

- 최근 중국의 중서부 지역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증가세임
- 중국 중서부 신장(新疆)자유무역시험구의 한 방직기계 제조사는 올해부터 중앙아시아 지역 6개 바이어의 신규 오더를 접수. 충칭시 양강신구(两江新区)에서는 히타치에너지(日立能源)가 ‘글로벌 변압기 스마트 생산기지’를 가동, 이는 히타치에너지의 글로벌 최대 규모이자 가장 스마트한 생산기지로 손꼽힘.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는 ‘카자흐스탄-시안 부두 프로젝트’를 개시, 향후 카자흐스탄 기업들의 중국 내 물류 집산지로 성장할 전망
- 중국의 제조업은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로 외자기업도 동참. 베이징의 외자기업 R&D센터는 100여 개에 달하며, 광둥성에서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자기업 중 절반 이상은 하이테크 제조업에 투자
- 2024년 1월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1,127억 위안(한화 약 21조 원)으로 전월 대비 20.4% 증가,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 신설 외자기업은 4,588개 사로 전년 동기대비 74.4% 증가
- 한편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임항신편구(临港新片区)에서는 20여 명의 관계자가 전국 최초의 ‘데이터 국경 간 분류 등급관리 리스트’를 제정 중으로, 동 리스트에는 자동차, 해상 운송, 금융, 바이오 등 4대 분야에 대한 10여 개 시나리오 및 수백 가지 항목의 데이터 필드가 포함
- 임항신편구 관계자는 “과거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은 복잡한 심사허가 절차가 다국적 기업의 애로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상기 리스트를 토대로 감독·관리를 간편화하여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국제재선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088915371155242&wfr=spider&for=pc>